부산불교聯 '팔관회' 널리 알린다

9월~11월, 팔관회 고증 재현해

팔관회 팔재계 가치·의미 알려
팔재계 알려 인간성 회복 계기
팔재계 인식 위한 시민걷기 등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연등회와 더불어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대표하는 팔관회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7일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2022 팔관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팔재계 수계의식과 고증 재현한 팔관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올 행사는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및 수계', '팔재계(八齋戒) 체험 걷기대회', '팔관회',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등 새로운 기획으로 대중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팔재계(八齋戒) 체험 걷기대회

이번 팔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는 9월 17일 오후 2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다. 부산시민 등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에서는 팔재계를 보다 많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고 현대에 맞는 실천사항을 알리기 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등 8계의 의미와 가치를 8곳의 부스에서 각각 체험하게 된다. 8곳의 부스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발급하는 스티커 봉투를 통해 참석 인증을 받게 된다. 접수는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12시부터 시작하며,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수원지 둘레길(약 2.5km)에 조성된 걷기 코스를 따라 출발지로 돌아오면 된다. 별도의 개회식은 없으며 회향은 오후 3시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어울림한마당은 후원금 모금 및 경품 추첨, 가수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범어사 등에서 '2022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2021년에 진행된 팔관회 모습.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및 수계

10월 1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특설무대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수계의식이 진행된다. 먼저 오전 11시에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1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선재동자 팔관재계수계법회가 열리고, 오후 3시부터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 마정수기 법회 '가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을 운영 중이다.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관련 행사 참여와 호국 관련 유적지 탐방 및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 팔관회

본 행사인 팔관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10월 16일은 어린이를 위한 수계법회가 열리고, 17일 오후 2시에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가 진행된다. 호국기원법회는 문헌에 따라 팔관회 당시 국왕이 왕사를 모시고 국태민안과 순국장병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던 법회를 재현한다. 법회에는 부산시장 등 내빈에 참석하고, 사부대중은 인왕반야경 호국품으로 호국기도문을 올린다. 백희가무는 호국 및 불교를 주제로 한 공연이다. 이번 해 백희가무 공연은 만해 한용운 스님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에는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한 고려 팔관회와 팔재계를 근거로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부산 지역 사찰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호국 추모 행사도 진행된다. 각 사찰들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1분 동안 11번 타종하고 추모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에 동참한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에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Vince Courtenay,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묵념 및 추모행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의 날이다. 부산 지역 사찰들은 이날 범종을 울려 추모의식에 동참하고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통해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팔재계의 중요성을 알려 인간성 회복의 기틀을 제시하고자한다"며 "팔관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가장 성대하게 진행된 대표 불교문화행사이다. 앞으로 팔관회 복원에 앞장서고 국가적 행사로 중요도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상을향기롭게'·인도 디브르가大 협약

한글학교 설립 상호 협력 협약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세종지부가 9월 1일 인도 동북부 아삼(Assam)주에 위치한 디브르가(Dibrugarh)대학교 본부에서 한글학교(Korran-language School)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세종지부와 디브르가대학은 앞으로 한국어교육과 양국 청년문화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세상을 향기롭게 세종지부 이기석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글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며, 디브르가대학교 레지스터(Prof, Parama Sunuwal)가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세종지부는 "인도 아삼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한국어 교육 협약으로 의미가 있다. 이후 졸업생들은 한국으로의 교육진출과 양국 문화교류의 핵심인재로 양국 선린의 미래세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 동북부 아삼주는 인도 한류문화의 시작점이지만 한글교육을 위한 제반시설 및 교육기관이 전무했다. 아삼주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 기관의 협약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아삼한글학교는 2023년 2월에 개교할 계획이며 4학기 2년 동안 학사과정이 운영된다. 한글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60명의 대학생 및 청년들을 선발해 교육하며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사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박수관 회장, 소외이웃 돕기

부산 진구 소외이웃에게 5000만 원 상당 쌀 전달

부산 불자기업가 박수관 (주)YC TEC 회장이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박수관 회장은 9월 5일 부산 진구청에서 '추석맞이 이웃돕기성품 전달식'을 통해 쌀 10kg 1570포(5000만 원 상당)을 부산 진구청에 전달했다.

쌀은 친환경 유기농쌀이며 부산 진구의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부산 진구는 부산에서 경제를 대변하는 핵심지역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곳이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잠시라도 시름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준비했다. 이번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움 가득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관 회장은 (주)YC-TEC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여러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40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석과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생활용품,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끝없는 기부와 봉사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 2010년 2월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취임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 · 경남 지역 기업체의 베트남 진출을 비롯해 부산은행 베트남 지점 개설, 부산 나트랑 간 항공기 취항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박수관 회장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범어사 신도회장,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신도회 소년소녀가정 돕기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병호) 봉사단이 9월 1일 울산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자비나눔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 물품은 백양사 산옹 스님의 쌀 10kg 50포, 감로사 영진 스님의 쌀 10kg 4포와 울산불교신도회 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라면 50박스이다. 성품은 울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에 전달 후 소년소녀가정 2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상담학술상 공모

상담심리 주제, 10월 23일까지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제3회 불교상담학술상'을 공모한다.

주제는 불교상담심리 및 불교심리치유에 관한 내용이며 응모대상은 불교상담심리 관련 전공자, 관련 종사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한국불교상담학회 이메일(kbca0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 논문에는 대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중순에 열릴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국불교상담학회 학회지인 '불교상담학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게재되며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연구 내용의 표절이나 중복이 발견되면 수상 이후라도 수상작 선정은 취소된다. 010-2933-006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